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40호 【루계 제25018호】 주체104(2015)년 8월 28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과 인민군당위원회 집행위원들, 총정치국,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국, 부서 책임일군들, 군종,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 각급 군사학교 지휘성원들, 국가안전보위, 인민보안기관 책임일군들, 당중앙위원회, 내각, 대외부문의 책임일군들, 도당책임비서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교전직전까지 치달아올랐던 최극단의 정세상황속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취한 혁명적조치들과 그 집행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 교훈들을 분석총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철통같이 다져나가기 위한 중대한 전략적과업들이 토의되였다.

확대회의에서는 또한 라선시큰물피해복구대책문제를 토의하고 당중앙군사위원회 일부 위원들을 해임 및 임명하였으며 조직문제가 취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확대회의에서 이번 위기사태의 전말을 상세히 통보하시면서 전시상태가 선포된 전선부대들의 군사작전준비과정과 준전시선포지역안의 각 부문 사업정형, 북남고위급긴급접촉정형에 대하여 분석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에 조성되였던 일촉즉발의 긴박한 정세속에서 우리 당은 전국, 전민, 전군을 이끌며 정확한 자기의 령도력을 발휘했으며 정세의 난항을 헤칠 단호한 결심들과 전략적방침들을 제시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하늘과 땅, 바다의 조국보위초소에 서있는 영용한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드팀없는 조국사수와 혁명보위정신,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에 의하여,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목숨바쳐 사수하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끝까지 지켜내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 뜨거운 조국애에 의하여 우리 조국앞에 닥쳐왔던 위기가 우리의 발밑에서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위험천만한 사태는 평정되였다고 하시면서 전쟁이라는 재난의 난파도앞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여준 사랑하는 인민들과 전군의 영용한 장병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을 보위하여 천만이 총폭탄이 되여 나서고 전선과 후방,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조국수호전에 과감하게 떨쳐나선 이런 전국가적, 전인민적단결의 위력은 일찌기 류례가 없는것이였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누구의 지원도, 동정도 없는 력사의 돌풍속에서 우리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행복을 지켜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사태를 평정하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의 진정한 힘을 더 잘 알고 더 굳게 믿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진정한 힘, 강대한 힘의 위력은 위험한 침략을 막아내고 그로부터 발생될수 있는 참혹한 전쟁을 막아내는데 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에 우리는 주동적으로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을 열고 무력충돌로 치닫던 일촉즉발의 위기를 타개함으로써 민족의 머리우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장구름을 밀어내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북남고위급긴급접촉에서 공동보도문이 발표된것은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화해와 신뢰의 길로 돌려세운 중대한 전환적계기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2면으로 계속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되였다

1면에서 계속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접촉결과는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숭고한 리념의 승리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운명적인 시각에 화를 복으로 전환시킨 이번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꾸어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근본리익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으며 그에 저촉되는 대화나 평화적분위기는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벼랑끝까지 닿은 교전직전에서 다시 되찾은 평온은 결코 회담탁우에서 얻은것이 아니라 위대한 우리 당이 키워온 자위적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무진막강한 군력과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무적의 천만대오가 있기에 이룩될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세월의 강풍속에서 더욱 굳세여진 선군의 총대와 군민의 일심단결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조선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근본담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앞으로도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추호의 동요없이 국가방위를 위한 군사력강화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적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확대회의에서 다음으로 최근에 발생한 라선시의 큰물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통보하시면서 인민군대가 라선시피해복구사업을 전적으로 맡아 당창건기념일전으로 완전히 끝낼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고 라선시피해복구전투지휘사령부를 조직하시였다.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고 당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심에 넘쳐 조국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격동적인 시기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승리와 륭성번영을 담보하는데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한 력사적인 계기로 된다.

전체 참가자들은 조국앞에 닥쳐왔던 위기의 소용돌이속에서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안녕을 지켜내고 온 겨레가 바라는 소중한 평화를 사수한 기쁨과 긍지, 자랑을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더욱 굳게 뭉쳐 당창건 70돐을 향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강성번영하는 선군조선의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일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사 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청년강국의 위용을 더 높이 떨치자

우리 조국은 위대한 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들의 강한 정신력과 억센 기상으로 불패의 위용을 떨치는 청년강국이다.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선군조선의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이기 위한 장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청년절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청년절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승장구하여온 조선청년운동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최후승리의 한길로 용감무쌍하게 돌진하는 선군청년전위들의 용맹과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는 혁명적명절이다.

지금 우리의 모든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혁명의 년대들을 영웅적위훈으로 수놓아온 영광스러운 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나갈 불타는 일념으로 가슴끓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새시대의 력사적진군에서 선군혁명의 계승자들인 청년들이 앞장에 설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의 력사는 청년중시의 력사, 불패의 청년강국을 일떠세운 력사이다.

일찌기 청년들속에 들어가는것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청년들을 혁명의 강력한 전위대오로,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의 홰불봉을 청년들에게 안겨주시고 청년동맹을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청년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장구한 혁명령도의 전기간 청년들을 혁명의 주력부대로 내세우시고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키워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의 품속에서 이 땅우에 청년중시의 숭고한 경륜이 펼쳐지고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이 일떠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혁명의 계승자로,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 억세게 자라난 조선청년들의 긍지와 영예는 끝이 없다.

오늘 조선청년운동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청년중시정치에 의하여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4차 초급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시여 청년들이 당의 선군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며 고상한 정신과 미풍을 지닌 시대의 선구자들을 키워낸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을 높이 내세워주신분도 우리의 원수님이시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고 청년강국이라는 새로운 시대어로 청년돌격대원들의 위훈을 값높이 빛내여주시고 국제무대에서 조국의 영예를 만방에 떨친 선군조선의 빨찌산녀전사들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몸소 비행장에까지 나가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우리 청년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의 열정과 지혜를 다 바쳐가는 전위투사들로 더욱 튼튼히 준비되고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을 끊임없이 창조하고있다.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보람찬 투쟁에서 청년영웅이 되자!》, 이것이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높이 들고나가는 수백만 청년들의 애국충정의 구호이다. 숭고한 사상정신과 비상한 전투력, 질풍같은 속도로 백승의 진군로를 힘차게 열어나가는 긍지높은 세대, 선군의 불길속에서 억세게 성장한 청년대군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자랑이다.

우리 청년들은 일편단심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전위투사들이다.

청년들은 당의 령도밑에서만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가는 청년전위로서의 영예를 높이 떨칠수 있다. 당의 령도는 청년들의 생명선이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당중앙과 사상과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해나가는 혁명의 계승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다. 우리 혁명의 1세대 청년들처럼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지니고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혁명의 수뇌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열혈의 혁명가들이 우리 청년들이다. 당이 번개를 치면 우뢰로 화답하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는 우리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들의 영웅적기상과 단결력, 전투력은 선군시대 기적창조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의 붉은 기폭에는 당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꿋꿋이 걸어오면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친 청년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있다. 언제 어디서나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로 심장을 끓이고 당이 가리키는 길로 억세게 나아가는 전위투사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우리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우리 청년들은 조국의 자주권수호와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한몸 다 바쳐 싸우는 선봉대, 돌격대이다.

사회주의조국은 우리 청년들의 영원한 삶의 보금자리이다. 조국의 운명이자 청년들의 운명이며 조국의 존엄이자 청년들의 영예이다.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청춘의 리상과 포부는 선군조선의 국력을 더욱 힘있게 떨치기 위한 애국투쟁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선군시대의 청년이라면 마땅히 혁명의 총대를 틀어잡고 조국보위의 제일선에 서야 한다는것이 우리 청년들의 한결같은 열망이다. 백두의 혁명정신과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심장에 쪼아박은 선군시대 청춘들의 필승의 기상과 일당백의 용맹이 조국보위의 전초선마다에 차넘치고있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를 비롯한 대고조격전장들에서 나래치고있는 청년들의 완강한 공격정신과 전투적기백은 온 나라를 기적창조의 불도가니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우리 조국을 과학기술강국으로 만들려는 야심만만한 투지를 안고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나가는것도 청년지식인들이고 아버지, 어머니세대들의 넋을 이어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것도 우리의 남녀청년들이다. 조국앞에 지닌 자기 세대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는 선봉대, 돌격대인 믿음직한 청년대군이 있어 우리 식 사회주의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우리 청년들은 고상한 정신과 인생관을 지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하는 미풍의 선구자, 훌륭한 젊은이들이다.

청년들은 나라와 민족의 귀중한 꽃이며 미래의 주인공이다. 민족의 양양한 전도와 사회의 혁명적분위기는 건전하고 고상한 청년들의 아름다운 모습과 기풍에 비끼게 된다.

오늘 우리 청년들속에서는 미래를 사랑하고 사회와 집단, 동지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미풍들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20살 꽃나이에 부모없는 아이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애지중지 키우고있는 강선땅의 《처녀어머니》의 소행,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곳으로 탄원하고 동지들을 위하여 자기를 아낌없이 바치는 남녀청년들의 아름다운 소행은 진주보석에도 비길수 없는 참으로 소중한것이다. 인생의 귀중한 청춘시절을 사회와 집단의 화목과 단합을 위해 헌신하는것을 삶의 보람으로, 행복으로 여기는 청년들이 있기에 우리의 사회주의대가정에는 언제나 사랑과 정이 끝없이 흘러넘치고있다.

지금 제국주의반동들은 온갖 부정의와 탐욕으로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류의 미래를 병들게 하고있으며 감히 우리 청년들까지 변질시키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그러나 세상에 유일무이한 청년강국인 우리 조국땅에서는 백두산의 청신한 정기를 담은 선군청년문화가 더 활짝 꽃펴나고있으며 세인을 감동시키는 청년미풍선구자들이 수없이 배출되고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며 반동적인 사상문화를 압도하는 혁명적인 사상문화의 쾌승이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헌신적복무정신, 사회와 집단, 동지들에 대한 고상한 도덕의리심은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조선청년들의 특질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이 모셔진 청년동맹기발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혁명의 홰불봉은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는 선군청년전위들의 백승의 기치이며 영원한 신념의 표대이다.

모든 청년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조선청년의 용감성과 단결력, 전투력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적청년운동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운동사상과 업적은 조선청년운동의 강화발전과 승리적전진을 위한 만년재보이다.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며 수령님들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심장깊이 체득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수령영생의 대기념비로 길이 빛내이고 결사보위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앞장에서 폭풍쳐내달리며 청년사업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일심단결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가는 혁명의 전위투사로 삶을 빛내여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태양이시고 승리의 기치이시다.

청년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며 원수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나가야 한다. 한별만세를 높이 부르며 수령결사옹위의 성스러운 전통을 창조한 혁명의 1세대들처럼, 당과 수령,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운 전화의 용사들처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길에서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고 천겹만겹의 성새, 방패가 되여야 한다. 누구나 눈속에서도 푸른 빛 잃지 않는 소나무의 기상, 백옥같은 충정과 참대같은 절개로 일편단심 경애하는 원수님만 굳게 믿고 따르는 신념의 강자가 되여야 한다.

청년들은 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며 강성국가건설대전에서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한다.

강력한 총대우에 청춘의 행복도, 아름다운 미래도 있다. 청년들은 혁명의 총대, 계급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우리 조국을 철벽으로 지키며 분별없이 날뛰는 침략의 무리들을 무자비하게 소멸하여야 한다. 누구나 군사를 성실히 배우고 전민항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 자기의 일터와 학교, 고향마을을 그 어떤 원쑤도 얼씬못하는 금성철벽의 보루로 만들어야 한다.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고 백두산혁명강군의 병기창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데서 선군시대 청년전위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의 본태와 우월성이 맥맥히 살아높뛰는 청신한 선군청년문화로 반동적인 사상문화를 단호히 짓뭉개버려야 한다.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대고조전투장들은 청년들의 투쟁과 위훈의 활무대이다. 청년들은 들끓는 전구들마다에서 위대한 김정은시대 청년들의 영웅적신화를 창조하며 값높은 위훈이 새겨진 로력적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야 한다. 투철한 사상정신과 용감한 돌진력, 질풍같은 속도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돌격전을 맹렬히 벌리며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를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건설을 적극 다그쳐 끝내야 한다. 청년들은 우리 당의 사회주의문명국,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야 한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굽어보는 원대한 포부와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을 지니고 최첨단돌파전의 선봉에서 용감하게 전진하는 과학전선의 1번수가 되여야 한다. 백절불굴의 정신력과 당이 제시한 빨찌산공격전법으로 국제경기들마다에서 맞다드는 강팀들을 물리치고 조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야 한다. 청년들은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이 땅우에 사회주의선경들을 펼치고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 우거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청년동맹은 선군혁명의 척후대, 당의 믿음직한 익측부대이다. 청년동맹안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동맹초급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 청년들속에서 조직사상생활을 강화하여 청춘시절을 청년혁명학교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몰려주신 가장 고귀한 사상정신적유산이며 조국번영의 위력한 무기인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청춘들의 심장에 깊이 심어주며 5대교양을 틀어쥐고 사상교양사업을 참신하게 공세적으로 벌려 청년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총폭발시켜야 한다. 청년미풍선구자들의 미덕과 미풍을 불씨로 하여 온 나라에 긍정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여야 한다.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청년동맹사업을 당사업의 한부분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청년동맹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여주며 청년동맹초급일군들이 높은 영예와 긍지를 가지고 일할수 있게 내세워주고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실천투쟁속에서 부단히 단련시켜야 한다.

청년중시는 우리 당의 영원한 전략적로선이다. 위대한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는 청년전위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선군조선의 미래는 끝없이 휘황찬란하다.

청년강국의 주인공들이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발걸음따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기발을 펄펄 휘날리며 백두산대국의 승리와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영웅적기개를 높이 떨치자.

우리 당의 청년강국건설사를 빛내이는 새로운 조선속도, 영웅적신화 창조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 1호발전소 언제콩크리트타입 결속

70년의 년륜을 새기는 우리 당의 청년강국건설사를 빛내이며 백두대지의 발전소건설장에서 자랑찬 승리의 함성이 높이 울려퍼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호소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기고 애국충정의 결사전을 줄기차게 벌려온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이 드디여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완공의 관건적대상인 1호발전소 언제콩크리트타입을 빛나게 결속하였다.

청년절을 하루 앞둔 27일 오전 언제좌안과 우안의 2호, 4호언제기중기가 혼합물바가지로 9블로크, 14블로크에 마지막혼합물을 장쾌하게 쏟아부었다. 다짐봉을 억세게 틀어잡은 타입공들이 만년언제의 마지막부분에 대한 다짐작업을 불이 번쩍 나게 다그쳐 끝내였다.

정각 오전 11시 1호발전소 언제콩크리트타입공사가 승리적으로 결속되는 환희와 격정의 순간 언제의 좌우안과 언제하류의 곳곳에 모여있던 전체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이 터치는 우렁찬 《만세!—》의 함성이 백두대지의 산발을 쩌렁쩌렁 울리며 오래동안 높이높이 울려퍼지였다.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이 1호발전소 언제콩크리트타입공사를 앞당겨 결속한 이 자랑찬 성과는 당창건 일흔돐까지 1, 2호발전소건설을 끝내고 전력생산의 동음을 울릴수 있는 결정적담보를 마련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기적으로서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 더 큰 박차를 가하고있는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크나큰 기쁨과 환희를 더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야 합니다.》

청년절을 앞두고 백두대지의 발전소건설장에서 높이 울려퍼진 승리의 함성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결심은 곧 조선의 실천이며 우리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은 모든 기적창조의 근본원천, 추동력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뚜렷이 과시하고있다.

백암군의 서두수상류에 건설되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는 우리 나라 수력발전소건설력사상 가장 불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극복해야 하는 어렵고 방대한 공사대상이다. 특히 기본대상인 1호언제는 해발 1 000m이상의 산협을 가로지르는 시공상 매우 복잡한 수백m길이의 2중아치형콩크리트언제이다. 세멘트를 비롯하여 건설에 필요한 물동량을 수백리 떨어진 철도역으로부터 날라와야 하며 더우기 백두대지의 엄혹한 추위로 1년에 반년정도는 언제공사를 진행할수 없는것으로 하여 공사를 시작하여 10년 남짓이 지난 올해 4월 중순까지만 하여도 언제콩크리트치기는 총공사량의 2/3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였다. 언제높이로 볼 때 평균 30여m를 더 쌓아야 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인 지난 4월 19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산아래 첫 동네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하루빨리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실 웅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혁명의 성지 백두산에서 내리시는 길로 이곳 발전소건설장에 대한 현지지도를 진행하시였다. 력사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년동맹에 통채로 맡겨주신 발전소건설을 당창건 일흔돐까지 무조건 끝낼것을 청년돌격대원들에게 뜨겁게 호소하시였다.

자신께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심정이라고 하시며 백두대지의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청년돌격대원들이 이룩한 크지 않은 성과를 청년강국이라는 새로운 시대어에 담아 값높이 평가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은 전체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의 가슴마다에 백두산악과도 같은 억센 신념과 배짱, 항일투사들이 지녔던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만장약해주었다.

날에날마다 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있는 백두전역의 투쟁소식을 보고받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절까지 1호발전소 언제콩크리트타입을 결속하면 또 하나의 조선속도를 창조하는것으로 된다, 온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기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혁명령도의 전기간 수놓아오신 우리 당의 70년 청년강국건설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렇듯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의 전구 백두대지의 발전소건설장에서 새로운 조선속도, 영웅적신화가 탄생하는 새로운 장을 펼쳐놓았다.

불과 넉달 남짓한 기간에 1호발전소 언제건설장에서는 지난 9년간 한해평균타입량의 5.5배이상, 최고 타입년도의 2.2배이상의 콩크리트치기가 진행되였고 전반적언제가 4월말에 비하여 평균 30여m나 장성하여 자기 높이에 우뚝 올라섰다.

1호언제콩크리트타입의 결속과 더불어 백두대지의 하늘가에 높이 울려퍼진 승리의 함성, 그것은 자기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였고 오늘도 선뜻 믿기 어려운 기적과도 같은 현실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터치는 전체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의 고마움의 인사, 크나큰 격정의 분출이였다.

방대한 1호발전소 언제콩크리트타입을 빛나게 결속한 오늘의 승리는 당의 사상과 방침을 결사옹위, 결사관철해나가며 전체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이 무비의 대중적영웅주의와 치렬한 사회주의경쟁열풍으로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 세상에 선포하신 발전소완공날자를 무조건 보장하자, 이런 애국충정의 맹세, 결사관철의 의지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며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은 1호발전소 언제공사장에서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열풍을 거세차게 일으켜나갔다.

청년절까지 언제콩크리트타입공사를 완공할 비상히 높은 목표가 세워졌다. 할수 있는가 없는가를 타산하기에 앞서 무조건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청년절까지의 날자를 하루하루 쪼개여 일콩크리트타입량이 정해졌다.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의 전투력있는 려단들이 3만㎥이상에 달하는 언제좌우안의 중력부, 지지대타입과제를 맡고 새로운 전투진지를 차지하였다. 대부분 청년돌격대원들에게 있어서 언제콩크리트타입은 전혀 생소하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그들의 심장마다에 결사관철의 의지가 더욱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였다. 각 려단별로 백두산칼바람에 돛을 달고 조선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집단적혁신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함경남도려단 지휘관들이 청년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을 최대한 분출시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며 작업공정별에 따르는 로력조직과 시공조직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하루평균 170㎥, 최고 300㎥이상의 타입실적이 기록되여 려단은 5월전투목표를 2배이상 넘쳐 수행하고 려단별 첫 사회주의경쟁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려단의 전체 청년돌격대원들은 앙양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6월에 이어 7월에도 공격속도를 비상히 높이며 달리고 또 달려 언제타입에 인입된 다른 려단들의 작업량을 다 합친것보다 더 많은 1만 8 000㎥의 우안지지대타입과제를 한달이상 앞당겨 수행하여 전반적인 공사기일을 앞당기는데 결정적기여를 하였다.

5월전투목표를 1.5배이상 넘쳐 수행한 황해남도려단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6월에 들어와 우안중력부의 5개 블로크에서 련속타입을 더욱 기세차게 들이대였다. 당앞에 맹세다진 완공의 그날을 앞당길 불같은 열의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줄기찬 투쟁을 벌려 려단은 청년절까지의 전투목표를 70여일이나 앞당겨 지난 6월 19일에 수십m길이의 우안중력부를 자기 높이에 제일먼저 올려세우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황해북도려단이 맡은 좌안언제콩크리트타입전투장에서도 백두청춘들의 대담한 공격정신이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려단의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연길록탄정신으로 한사람같이 떨쳐나 나무로 혼합물수송통로를 만들어 리용함으로써 콩크리트타입속도를 부쩍 끌어올리였다. 불가능을 모르는 청년전위들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드세찬 공격전을 련속들이대여 려단은 6월 18일에는 좌안지지대타입을, 7월 12일에는 아치형언제의 23블로크타입을 끝냄으로써 현장련합지휘부에서 하달한 전투명령을 한달반이상 앞당겨 결속하였다.

청년절까지 내세웠던 좌우안지지대, 중력부타입과제를 한달이상 앞당겨 끝낸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은 현장련합지휘부의 기동적인 작전에 따라 7월 하순부터 아치형기본언제의 좌우안에서 련이은 콩크리트타입전투에 달라붙었다. 백두대지의 발전소건설의 주인이라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함경남도려단, 황해북도려단, 황해남도려단, 함경북도려단 청년돌격대원들은 전문건설단위들과의 협동작전으로 완공의 그날을 앞당기며 끊임없는 공격전을 들이대여 기본언제좌안의 15, 17, 19, 21블로크와 우안의 18, 20, 22, 24블로크타입을 결속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골재와 세멘트보장을 맡은 돌격대원들도 싸우는 고지에 포탄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한사람같이 떨쳐나 언제콩크리트타입을 앞당겨 결속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량강도려단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이 백암청년역과 굴송역에서의 세멘트상하차작업을 전적으로 맡아 5만t이상의 물동을 제때에 처리하는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자강도려단, 평양시려단 청년돌격대원들은 언제좌우안의 중력부, 지지대타입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킨 기세로 세멘트상차를 비롯한 맡겨진 전투임무수행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켰다. 남포시대대 청년돌격대원들도 방대한 량의 골재보장전투임무를 맡아 책임적으로 수행하였다.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 운수대대, 8.28청년돌격대관리국 운수기동려단 돌격대원들도 넉달도 안되는 기간에 백두대지의 멀고 험한 운행길을 헤치며 자동차 한대당 최고 2만㎞, 평균 1만 수천㎞의 총정의 주로를 끊임없이 이어가며 증송의 경적소리를 높이 울리였다.

건설건재공업성아래 여러 건설단위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백두청춘들과 발맞추어 우리 당의 청년강국건설사의 한페지를 자랑스럽게 수놓으며 1호언제 아치형부분콩크리트타입에서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당앞에 결의다진 하루 1 000㎥의 타입목표를 돌파하기 위한 총돌격전이 5월 중순부터 치렬하게 벌어졌다. 성책임일군들의 작전에 따라 남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 선별, 혼합공정의 기술개건과 보수전투가 립체적으로 벌어져 불과 보름도 안되는 사이에 생산능력이 종전의 2~2.5배이상으로 높아졌다. 그에 맞게 권양기, 내연기관차, 언제기중기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도 취해져 하루타입량을 끌어올릴수 있는 결정적돌파구가 마련되였다. 기본언제타입전선을 4곳으로 확장하기 위한 성적인 조직사업에 따라 여러 건설단위에서 기술자, 기능공들이 백두대지로 달려오고 기중기차, 혼합기, 대형자동차를 비롯한 물질기술적수단들이 마련되는 속에 드디여 6월 상순부터 1 000㎥의 타입목표가 돌파되였다. 7월에 들어와서는 공격속도가 더욱 높아져 하루평균 1 300㎥, 최고 1 560㎥의 콩크리트타입을 하는 위훈이 창조되였다.

기본언제타입의 중요전선을 맡은 남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130일간의 낮과 밤을 애국헌신의 나날들로 수놓아왔다. 선별, 혼합공정을 지켜선 로동자들은 혼합물생산이자 곧 언제높이라는 책임감을 안고 흐름식생산공정의 숨결을 믿음직하게 지켜나갔다. 운수직장, 중기계직장, 자력갱생직장 로동자들은 혼합물운반설비들의 예비부속품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교대간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석달 남짓한 기간 근 10만㎥의 혼합물을 지장없이 보장하는 혁신을 일으키였다. 중심부언제를 타고앉은 타입직장 로동자들도 시공공정계획에 따라 여러 블로크들에 대한 련속타입을 드세차게 들이대여 연수십m길이의 언제콩크리트치기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보장하였다.

부령수력발전건설사업소, 련두령수력발전건설사업소,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와 함흥산업건설사업소, 금야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에서 달려온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도 백두대지의 만년언제를 하루빨리 일떠세울 충정의 각오안고 자랑찬 위훈을 수놓아왔다. 기본언제의 여러 블로크들을 각기 맡은 이곳 단위 건설자들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과 대담한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얼마 안되는 짧은 기간에 연 수만㎥의 타입을 진행하여 1호발전소 언제콩크리트타입을 성과적으로 결속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당앞에 맹세다진대로 청년절을 앞두고 1호발전소 언제콩크리트타입을 승리적으로 결속한 전체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의 기쁨과 긍지는 지금 하늘에 닿고있다. 우리 당의 청년강국건설사를 빛내이는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마련하고 청년절을 뜻깊게 맞이한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절대적으로 따르며 결사관철의 피끓는 심장을 안고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과감히 뛰여든다면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그 어떤 기적도 창조할수 있다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더욱 굳게 자리잡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장시

청년강국의 새 전설

한 동 선

사람이
두 시절을
함께 살수 있는가

처녀시절 지나서 어머니 되고
어머니라 불리우면 처녀라 아니하
건만
한시절 꽃시절인 처녀시절에
어머니삶을 시작한 그 인생
아름다운 두 시절을 한몸에 지니였
거니

내 나라 아니며는 그 어디에 있으랴
전설처럼 아름다운 처녀의 이야기
전설처럼 전해갈 사랑의 이야기
《처녀어머니》를 떠올린
위대한 시대의 전설 아닌 이 전설

아, 해님의 축복받은 《처녀어머니》
깨끗하고싶어라
내 마음도 그 이름처럼
아름답고싶어라
나의 시도 그 이름처럼

1

멀고먼 옛날
선녀들이 내렸다는 강선땅을 감돌아
옛이야기 전하며 흐르는 시내
하늘의 선녀들이 칠보화관 벗어놓고
칠칠한 머리채를 감았다는 시내

천리마 날아오른 기적의 전설도
불노을에 비끼인 쇠물집이야기도
모두 싣고 전하며 흐르는 시내가에
곱게도 다듬어진 빨래돌 하나 있어…

빨래하는 풍경은
이 기슭을 떠난지도 오래건만
웬일이냐
빨래돌 여기 놓여있는것은

타박타박… 내 마음속을 걸어
다가오는 발자국소리
눈앞엔 빨래감 내려놓는
외태머리처녀

너였구나
온 나라가 다 아는 《처녀어머니》!
지금 내 눈앞에 보여오는 너는
두해전 열여덟살 처녀의 모습

무슨 일로 빨래하러 예까지 나왔느냐
순직한 제강소 로동자부부의 아이들
그 세 자매의 여린 손목 꼭 잡고
집으로 데려갈적에
즐거움만 있으리라 생각지 않은 네
가슴에
남모르게 쌓인 괴로움은 그 얼마

정성을 기울이고 또 기울여도
그 작은 가슴들에
어머니의 따스한 정
채워주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였을 때

그런 때면
와르르— 무너져내리던 네 마음
그런 때면 일부러 빨래감안고 나왔지
내 정말 엄마될순 없을가 자신에게
물으며
나약해지는 마음을 빨래돌에 두드
렸지

그렇게 허물어간 빨래무지 모으면
아마도 작은 산이 되고도 남으련만
기쁜듯이 즐거운듯이
너는 식구를 늘여갔구나

손목잡고 한 아이
등에 업고 또 한 아이…
아래목에 깃들이고 한구들에 정들
일 때
사랑으로 활짝 열려진 네 마음을
마당삼아
아이들은 마음껏 뛰여놀았고
나날이 더 따스해지는 보금자리에서
아이들은 네활개펴고 꿈나라에 갔
으니

어려있구나 엄마된 그 마음은
잠든 애들 추울세라
덧이불 여며주던 네 손길에
머리에 꽂고싶은 고운 빈침대신
학용품을 사안고 나서던 백화점매대
에도

아이들 밥그릇에
자기 밥을 더 얹어주고
남몰래 숭늉을 마시던 그 모습은
틀림없이 자식많은 어머니모습이였
거니

무엇이 나어린 너의 심장을
이렇듯 뜨겁게 더울혀주었느냐
무엇이 그 말없는 헌신을
너에게 가르쳐주었느냐

너는 남다른데 없는
이 나라의 평범한 처녀
산천도 사람도 아름다운 이 땅
사랑으로 정으로 따스한
사회주의대가정에서 자라난 딸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던 그때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던 콩우유시간
철따라 안겨지던 사랑의 새 교복…
그 보살핌속에 너의 유년이 흘렀고

집집마다 쌀독이 퍼아갈 때에도
서로서로 나누고 위해주며
동이 난적 없었던 후덕한 마음들
고락을 함께 하던 마을사람들을
고향의 모습으로 새겨안고
너는 성장했나니

간직되여있었다 네 마음속엔
선생님 들려준
마안산이야기
아버지 들려주던
한흡의 미시가루이야기
별나라이야기에 비기지 못할
그 아름다운 전설이

쇠물끓이는 용해공들앞에서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목메여 부를 때
구리빛얼굴들에 흐르던 눈물
강선사람들의 뜨거운 그 진정이
네가 마신 공기였고 물이였고
너를 자래운 빛이였으니

그네들속에서 너는 배웠어라
시련을 웃음으로 이기는 법을
그리고 깨달았어라
받는것보다 주는것이
누리는것보다 바치는것이 더 큰
행복인것을

허나 다 알았더냐
한 자식 키우는데 오만자루 품든다
했거늘
일곱 아이 키우는데 몇만자루 품이
들지
일곱 아이 어머니가 되는것이 어떤것
인지

처녀의 나이는 겨우 열여덟
생활의 많은 고개 넘어보지 못한
인생의 먼길 걸어보지 못한
너무나 애어린 그 나이 열여덟

다만… 처녀의 가슴엔
눈물이 있었다 12월의 피눈물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때없이 때없이 출렁이는 눈물
집안의 외동딸로 응석많던 처녀를
단번에 철들게 한 12월의 피눈물이

그리고 또… 있었구나
우리 가슴 그리도 뜨겁게 한 눈물
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신 우리
원수님
부모없는 아이들 향해 두팔 벌리시며
—어서 오너라, 내 안아주마
내 다 안아주마!

넓으신 한품에 그러안으실 때
그이 안팎에 번쩍이던 그 눈물
온 나라를 울린
원수님의 그 눈물이!

가장 뜨겁고
가장 고귀한
어버이의 그 정 가슴에 흘러들어
사랑의 샘으로 솟구치고 또 솟구쳤
나니

아, 어버이의 정을 가슴에 지니여
일찌기 그 모두 알게 되였구나
엄마의 기쁨도
엄마의 아픔도

웃음많아 꽃시절인 처녀시절에
어머니되여 네 흘린 눈물은
웃음보다 더 고와라
아이들의 웃음꽃 그 눈물로 피웠기에

처녀의 마음이 하도 정갈해
강선의 시내는 더 맑아졌는가
처녀의 고운 마음 이 가슴에 안으니
빨래돌 너마저 전설속의 보물인듯

지줄지줄 노래하며 흘러가는 시내물
두손에 떠올려 빨래돌에 쏟으니
알알이 그우에 부서지는건
처녀의 눈물인듯 아름다운 구슬인듯
령롱한 방울마다 아이들이 웃어라
강선처녀가 곱게 웃고있어라

2

미안하다 처녀야
이 마음 알아다오
창가림 여미듯 부끄럼도 많은 시절
그 시절 내게도 생생하다마는

어째서이냐
수집은 네 마음 아랑곳없이
아기를 안고 잠든 네 모습마저
나는 왜 세상앞에 보여주고싶은거냐

가지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 없듯
아이들 시중에 허리펼새 없는 너
아침은 아침대로 언제나 드바빠
저녁은 저녁대로 아침보다 더 바빠
아이들 숙제장까지 모두 살펴보는
새면
등에 업힌 자명이는 쌔근쌔근 잠에
든다

깨여날가 조심조심
포단우에 살며시 내려놓으면
놓칠가 황겁히
네 몸을 부둥키며 파고드는 자명이
철부지 고사리손은 버릇처럼 더듬어
너의 가슴노리를 매만지고…
너는야 잠자는 애 더 깊숙이 끌어
안고…

찌르르!—
바라보는 내 몸에도 전류가 뻗쳤다
아, 젖먹이를 말아안던 두해전 그날
엄마찾는 애기손이 처음 와닿았을 때
네 가슴은 진정 얼마나 놀랬느냐
금방 공민증을 지닌 가슴에
네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품은것이
더냐

자다가도 깨여나 암죽을 쑤었고
데일세라 네 입술로 불고 또 불며
암죽숟갈 입안에서 식혀가며 먹였지
새벽마다 진자리에 잠깰 적에도
마음은 마냥 즐거웠더라지

그 애기
드디여 첫말을 번지며
엄마!
엎어질듯 네 품에 안길 때
낳아준 모성을 향해서만 보내는
생명의 첫인사앞에서
네 심장은 진정 얼마나 높뛰며 고동
쳤느냐

정녕 너는 엄마이고싶었지
부모없는 아이들을 가슴에 안으시고
잠 못 드시는 우리 원수님께
이애들 걱정은 아예 마시라 말씀
드리는 엄마
끌끌하고 어여쁘게 자란 자식들을
원수님앞에 떳떳이 내세우는 엄마

낮이나 밤이나 줄곧
원수님 향해 달리던 마음
5점맞은 시험지 흔들며 아이들이
들어설젠
전선에 계신 원수님께
그 자랑 아뢰이고싶었던 처녀

처녀의 마음속엔 미소가 있었다
기쁜 일 아뢰이면 더욱 기뻐지고
속상한 일 아뢰이면 가뭇없이 사라
지게 하는
원수님의 미소 사랑의 미소

이 세상 가장 따스한
어버이의 그 미소 가슴에 지니여
연연하고 나긋하던 몸과 마음엔
지칠줄 모르는
어머니의 힘과 용기가 깃들었나니

분명 너는 처녀이건만
분명 너는 어머니구나
자식낳아 기르는 어머니들보다
더 큰 어머니
어머니들중에도 제일 훌륭한 어머니

아름다와라
다독이며 다독이며
어린애를 잠재우다 혼곤히 잠드는
엄마인 이 처녀
처녀인 이 엄마

고생많은 어머니조국의 큰 짐을 덜어
서슴없이 엄마가 된 열여덟꽃나이여
미래에 바친
네 청춘의 꿈 가지가지
얼마나 아름답게 꽃피는것이냐

이 저녁도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누나
가슴펴고 세상을 향해
웃음많은 너의 자식들
부럼없는 행복을 자랑하고있구나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저녁마다 한구들 모여앉으면
언제나 다같이 부르는 노래
네살잡이 자명이도 똔금으로 외운
노래
시름없이 행복넘친 가슴들을 내밀고
고개높이 웃으며 아이들은 부르는데

아, 어이하여
나는 두볼을 눈물로 적시는것인가
이 아이들이 정녕 고아라 불리웠을
부모없는 아이들이란 말인가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
세상에 부럼없어라

아, 온 세상 아이들이 부러워하게
멋진 궁전 지어주신 원수님앞에서
육아원, 애육원의 복동이들이
울며 웃으며 부르던 노래
천하를 호령하는 우리 장군의 가슴
에서
참고참으셨던 뜨거운것이
끝끝내 북받쳐오르게 한 이 노래

일터와 가정 초소와 마을들에서
온 나라가 다같이 부르는 노래
가장 간고한 시련을 거쳐
가슴저린 피눈물의 언덕을 넘어넘어
더 높이 울려가는 우리의 노래
누구도 막지 못할 심장의 분출

황금낟가리우에 올라앉아 부른단들
이 노래 이토록 자랑겨울수 있으랴
억만재부 쌓아놓고 풍청댄다한들
이런 노래 어찌 울려나올수 있으랴

물어보라 이 나라 사람들이
왜 이리 눈물많은지
우리 원수님앞에선
어이하여 모두 어린애가 되는지
어찌하여 원수님을
어버이라 부르며 우리모두 사는지

오직 한분 원수님만을 따르며
서로 돕고 이끌며 래일을 마중가는
이 화목 이 기쁨이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긍지

정과 사랑이, 희망과 웃음이
처마아래 가득한
《처녀어머니》의 집이여
《고도문명》을 뽐내는
자본주의루각의 오만한 《거상》앞에
네 모습은 얼마나 밝고 거룩한것인가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진창에 구겨박고
우리의 미래를 고아로 만들려드는
원쑤들의 악덕과 만용앞에
《처녀어머니》의 미거여
네 기품은 얼마나 도고하며 여유작작
한것인가

세상사람들이여
내 나라엔 고아가 없어라!
우리 세상 아니며는
가장 설음많았을 부모없는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아이들 되는 내 나라엔
자애로운 어버이의 인덕을 닮아
처녀도 어머니 되는 사회주의 우리
집엔

《세상에 부럼없어라》!
원수님 식솔이 길이길이 부를 노래
이 노래 부르며 눈물젖는 처녀야
너 불러 목메이는 구절구절
내 다시 새겨보나니
네게 과연
그 무슨 부러움이 있을것이냐!

3

…아, 그날 그 시각
처녀는 눈이 부시였더란다
하늘의 해를 본듯이
아니, 그보다 더 밝고 위대한 해님이
가까이 가까이 다가오고계시였기에

처녀는 금시 목이 메였더란다
아, 원수님! 아버지원수님!
뵙고싶던 원수님!
발을 동동 구르며 울고만 섰는데…

원수님께서 걸어오시였다
어려운 일 힘겨운 일에 앞장선
기특하고 대견한 청년들에게
자랑찬 대회합을 마련해주신 그이
천금같이 귀한 시간 아낌없이 바치
시여
무엇과도 못 바꿀 영광을 또 안겨
주시려

위대하다 아름다우시다
빛나는 그 안팎
하늘의 태양보다 더 찬란하고 따스한
빛발로
이 땅의 청춘들을 감싸안아주시는
우리의 태양!

걸어오신다
청년들을 제일 아끼시는분
아이들을 제일 사랑하시는분
아름다운 미래를 가꾸시는분
가까이 가까이 다가오고계신다

손을 내미신다
그 따스하고 정깊은 사랑의 손길을
잡아주신다 인정이 넘쳐흐르는 손
으로
단가마 뜨거운 김 스쳐간 손
거칠어진 처녀의 그 손을 잡아주신다

안아주고싶으시다 그이는
자그마한 어깨에 일곱 아이 걸머진
나어린 처녀의 기특한 그 마음을
처음 학부형회의에 참가하던 그날
교실의 맨뒤에 자리잡으며
수집어 고개숙이던 그 모습을

그리고 함께 다 안아주고싶으시다
등에 업은 애기를 추슬러 달래이며
무도회 가는 동무들을 바라보고 섰던
마음
앓는 애의 머리맡에 맞이하면 새벽
들을
지치여 쓰러지고싶던 그 낮과 밤
들도…

꿈인가 생시인가
처녀는 무아경에 잠겨있는데
자애로운 미소로 바라보시며
원수님 다정히 하시는 말씀

—음, 부모없는 아이들을
일곱이나 데려다 키운다지?
어머니가 울면 되나?

아, 처녀를 어머니라
그이는 불러주셨다!
아이들을 키우며
참말이지 듣고싶던 부름이였어도
애들에게 바친 정 모자랐다싶어
아득한 높이에 세워만 두었던 부름

아이들 일곱이나 거느렸건만
아무래도 나이는 못 감추는게라고
처녀의 등 두드려주시며
정에 겨워 하시는 말씀

—얼마나 장하오
《처녀어머니》요, 《처녀어머니》!…

아, 《처녀어머니》!
아이들을 위해
청춘을 다 바치는 처녀에게
주시고싶은 모든것을 다 담아주신
이름이여
영광의 상상봉에 세워주신 이름이여

위대한 인간애로 뜨거운 가슴에서
울려나온 정다운 그 부름
사랑하는 딸의 애명을 부르시듯
애틋한 정 담아주신 어버이의 그
축복

자랑해라, 아이들아
온 나라가 부르는 《처녀어머니》
녀희들의 엄마를 애국자로, 선구자로
원수님은 높이 내세워주시였거니

천이더냐 만이더냐
이런 미덕의 주인공들
원수님 한분만을 우러러
티없이 순결한 충정을 지닌 청년들이
숲을 이루고 대하를 이룬 이 땅에

어찌 충신이 되지 않으랴
우리 청춘들
원수님을 마음속에 모셨는데야
어찌 강자가 되지 않으랴
원수님을 온몸으로 받드는데야
언제나 어느때나 승자가 되리라
우리 청춘들
그이를 신념으로 받들고 따르기에

만세!… 만세!…
태양의 인력이 바다를 기울였는가
삽시에 쏟아져내리는
감격의 열과, 환호의 열과
그속에 《처녀어머니》는 하나의
불방울!
목메여 울며 웨치며
겹겹이 에워싼 어깨성, 어깨성
그속에 《처녀어머니》는 하나의 성돌!

우리 장군, 우리 어버이—우리 해님
청년대군 천군만마의 옹위속에
드시다
미더운 청년대군을 한품에 안으시고
창창한 미래향해 밝은 미소 뿌리시다
그이의 희열은 누리에 끝없으시다

사랑하노라
청춘들, 나의 청년들!
그대들은 가장 아름다운 꽃, 푸르른
거목들
이 땅을 아름답게 하는 《처녀어머니》
같은 꽃들
이 나라의 만대를 떠받들 기둥들
키우리라 이내 심혈 다 쏟아부어
더 아름답게, 더 푸르게, 더욱더 무성
하게

행복하다, 그대 나의 조선이여
존엄높다, 그대 나의 조선이여
담차고 순결하고 용감한 이 청춘들
있어
그대는 정녕코 청년강국이여라

끓으며 타번지며 하늘땅을 뒤흔드는
만세!… 만세소리!…
원수님 우러러
만세로 감격의 울음으로 환호하는
청춘들의 화답이여

아, 사랑하는 우리의 해님이시여
위대한 우리의 장군이시여
두려울것 없어라 당신이 계시여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끝까지 가리라 최후승리 그날까지
폭풍도 시련도 맞받아나아가
백두대업승리의 그날을 맞으리라

청년들 우리 힘은 당신이 주신것
청춘들 우리 넋은 바로 당신의것
이 조선은 위대한 청년강국
청년강국은 김정은강국!

분출하는 청춘들의 한없는 열정
《처녀어머니》의 가슴에도 차고
넘친다
해님이 부어주신 생명력으로
영원히 아름다울 붉은 꽃송이
진동하는 그 향기 하늘땅에 가득차다

* *

먼 옛날 선녀들이 내렸다는 강선땅
오늘은 우리의 《처녀어머니》
고운 꿈날개에 아이들을 품어안고
해님을 우러러 날아오른 강선땅
청년강국 새 전설이 태여난
천리마의 고향에 저녁노을 붉은데
《처녀어머니》 서있다 꽃다발 안고서
강철지구에 모셔진
수령님들의 태양상앞에

흰저고리고름은 댕기처럼 나붓긴다
앞가슴엔 번쩍이는 김정일청년영예상
아이들 품안고 선 그 모습
어느땐가 어디선가 꼭 보았던 얼굴
인듯

청춘들이 빛내여온 년대와 년대
너와 같은 처녀들 얼마나 많았더냐
천리마시대 빛내인 길확실, 리신자
얼음구멍에 뛰여들어
아이들을 구원해낸 김정순영웅
그 모두 처녀들이였지
선군시대 수놓은 방송원처녀도
너와 다름없는 꽃나이였지

수령님들 품속에서 떨기떨기 꽃으로 핀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원수님 품에 꽃으로 피여난 처녀
일생 두 시절을 함께 살 처녀

세월이 흘러흘러
오늘이 어제 되는 그때에 가서도
전설속의 《처녀어머니》로 너는 불리
우리라
소중한 처녀시절 아끼지 않은 인생에
지지 않는 꽃시절을
원수님은 베풀어주시였거니

사랑담아 정을 담아
나도야 시 한다발 바쳐주고싶다하니
아니라고 송구히 고개숙이며
간절히 너 부탁하던 말
원수님에 대한 시를 써달라고…

머리우에 아득히 바라보게 되는구나
너의 그 마음
그래서 조국은 빛어주고싶다
칠칠한 그 머리 금빗으로 고이 빗어
청실홍실 엮어서 치렁치렁 땋아주고
제일 고운 꽃으로 단장시켜주고싶다

가리란다 처녀는
이 아이들을 앞세우고
백두산으로 가리란다
맑고 푸른 천지물에 몸과 마음 씻어
주려
백두의 숭고한 뜻 가슴마다 새겨
주려
청년강국후비들로 억세게 키우려…

아, 원수님의 딸
《처녀어머니》!
위대한 어머니 조선로동당
은혜로운 그 품속에
이 나라 청춘의 대는 줄기차고 아름
다워

섬초소로 산간벽지로
돌격대기발 날리는 곳으로
주저없이 달려가는 청춘들의 소식
영예군인의 한생의 길동무 되는
이야기
날마다 날마다 전해지는 이 세월

자랑하라, 조국이여
백두의 혁명정신 가슴마다 지니고
붉고붉은 신념의 피 맥맥히 이어가는
이 나라 청년들을
무수한 새 전설의 주인공이 되여
전설의 락원 일떠세울
그대의 청춘들을

빛난다 청춘!
자랑차다 청춘!
떨친다 푸르름을
태양의 광휘아래!

축하하노라, 조국이여 그대의 젊음을
어버이의 인덕이 미덕을 낳고
미덕을 따름이 청춘의 멋인 이 땅
에서
그대의 견실한 아들딸들
조선의 앞날을 떠메고나가거니

드리노라, 영광을
전설적령장 김정은원수님따라
백두산칼바람에 붉은기 펄펄 휘날
리며
질풍쳐나아가는 백두산대국이여
위대하고 눈부신 전설의 나라
청년강국이여, 위대한 김정은조선
이여!

북과 남은 고위급긴급접촉의 성과에 토대하여 관계개선과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양건동지 기자의 질문에 대답

【평양 8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 8월 2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양건동지는 최근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이 진행된것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북과 남은 지난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판문점에서 고위급긴급접촉을 가지고 최근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수습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반 문제들을 폭넓게 협의한데 기초하여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공동보도문에는 북과 남사이의 무력충돌을 막고 긴장을 완화하며 북남관계발전을 도모해나가려는 쌍방의 의사와 립장이 반영되여있다.

이번 접촉을 통해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전체를 동란의 소용돌이속에 몰아넣을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험이 해소되고 북남사이의 평화와 안정, 화해와 협력을 위한 극적전환의 계기가 마련된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북과 남이 위험천만한 위기상황에서 서로 마주앉아 사태의 엄중성에 대해 공감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여 공동의 과제에 합의를 이룩함으로써 북남관계에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킬수 있는 획기적국면을 열어놓은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지금 북과 남이 예측할수 없는 충돌로 치닫던 험악한 사태를 막고 화해의 손을 잡은데 대해 내외가 한결같이 환영하고있다.

북과 남은 이번 접촉에서 이룩된 합의정신을 귀중히 여기고 극단적인 위기를 극복한데 그칠것이 아니라 북남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진시켜나가야 한다.

이번 접촉이 위급한 불을 끄기 위한 것으로만 되여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북과 남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서로의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대담하게 관계개선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

공동보도문에서 합의한것처럼 북과 남은 당국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발전시켜 서로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며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북과 남이 어렵게 마련하여 완화의 길로 돌려세운 현정세흐름을 잘 유지하고 관리해나가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처럼 북과 남이 원인모를 사건으로 요동치는 사태에 말려들어 정세를 악화시키고 극단으로 몰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실 북과 남은 애당초 이번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태에 말려들지 말았어야 하였다.

쌍방은 이번 사태에서 교훈을 찾고 북남사이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수록 리성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것이다.

북과 남은 더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민족의 장래부터 생각하고 멀리 앞을 내다보면서 판계개선과 통일의 길로 손잡고나가야 한다.

북남관계의 급속한 발전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이 존재할수 있으며 우리는 그에 대해 각성있게 대하여야 한다.

그러한 견지에서 북과 남은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특별한 주목을 돌려야 하며 우리 민족끼리 리념을 견결히 고수해나가야 한다.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일으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립장은 일관하다.

우리는 이번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의 합의정신에 기초하여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나갈것이다.

웰남특명전권대사 국경절에 즈음하여 연회 마련

웰남사회주의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팜 비엣 홍 주조웰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27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리수용외무상, 박근광, 김형룡, 리길성 등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국제기구대표들이 초대되였다.

웰남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웰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웬 푸 쫑동지와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 쯔엉 떤 쌍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과 웰남사이의 전통적친선협조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 도착

김봉화, 최진옥, 리철성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이 27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백승의 위력떨치는 무적의 강군이 있어 조국의 바다는 금성철벽

해군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언제나 해군무력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어 바다로 기여드는 외래침략세력을 바다에서 섬멸해버려야 합니다.》

주체혁명무력의 위력한 군종인 조선인민군 해군이 자기의 력사적인 탄생을 세상에 선포한 때로부터 수십돌기의 년륜이 아로새겨지고있다.

이날을 맞이하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우리의 해군을 일당백의 무적강군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따라 백승의 한길만을 줄기차게 걸어온 우리 해군의 발전사를 긍지높이 돌이켜보고있다.

일찌기 항일의 피어린 결전장에서 해방된 내 나라의 바다를 지켜갈 해군무력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5(1946)년 6월 수상보안대를 조직해주시고 해군간부양성의 모체기지로 될 수상보안간부학교의 터전까지 몸소 잡아주시였다.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의 로동계급이 무어낸 첫 함선을 보시면서는 그리도 만족하시여 군함의 이름까지 친히 지어주시고 풍랑세찬 바다우의 어뢰정에까지 오르시여 우리 나라는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기때문에 해군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군은 조국의 바다를 자체의 힘으로 지켜낼수 있게 튼튼히 준비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해군무력이 나아갈 길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는 주체적인 해군무력건설의 만년기틀을 마련한 원동력이였다.

하기에 우리의 해군무력의 탄생이온 세상에 선포된 력사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조선인민군 해군은 명실공히 조국의 바다를 금성철벽으로 지켜가는 무적필승의 혁명무력으로 승승장구하였으며 세계해전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승리와 기적으로 무적강군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쳐온것이다.

조국해방전쟁시기 단 4척의 어뢰정으로 《바다의 움직이는 섬》이라고 불리우는 미제의 중순양함을 격침시켜 세계해전사에 류례없는 기적을 창조한 1950년대와 더불어 신성한 조국의 령해에 불법침입한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나포하여 바다의 결사대로 용맹떨쳐온 1960년대,

이렇듯 년대와 년대를 이어가며 자랑찬 백승의 전통을 빛내여온 우리의 해군무력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군건설사상과 령도풍모를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해군무력을 가일층 강화발전시켜나가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더욱 장성강화되게 되였다.

어느해의 해군절, 김정숙해군대학을 찾으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대적인 해군무력창설을 위하여 해방직후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심으로써 오랜 세월 제 나라, 제 바다를 지켜줄 배 한척 없던 우리 인민이 오늘은 그 어떤 대적의 침공도 일격에 격파분쇄할수 있는 일당백의 강위력한 해군을 가질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해군건설위업에 쌓아올리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회억하시던 위대한 장군님,

침실과 식당, 리발실을 비롯한 후방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학생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면서 대학의 관리운영을 더욱 개선하여 해군무력의 골간으로, 기둥감으로 자라나고있는 귀중한 학생들을 훌륭히 키워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던 위대한 어버이의 다심하신 음성이 오늘도 해군용사들의 가슴속에 파도마냥 밀물쳐온다.

어찌 이뿐이랴.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해군건설업적을 빛내여가시며 일당백해병들에게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정은 실로 바다의 넓이에도, 하늘의 높이에도 비길수 없다.

20년전 2월초, 어느 한 해군부대를 찾으시여 전투함들의 외부와 내부를 돌아보시면서 무장장비상태를 료해하시고 부대가 적들의 그 어떤 침공도 일격에 격파할수 있는 일당백의 무장력으로 자라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부대의 지휘관들과 해병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으시던 병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

또 어느해 봄날에 찾아가신 해군부대에서 열렬한 조국애를 지니고 자기 초소를 꾸리기 위한 투쟁을 이악하게 벌려 병영은 물론 화력진지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정신이 번쩍 들게 꾸려놓은 군인들의 수고를 거듭 치하하시며 군부대군인들이 전투력강화와 부대관리에서 계속 전군의 앞장에 서려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며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던 그이의 거룩한 행로가 가슴뜨겁게 돌이켜진다.

정녕 가시는 바다초소마다, 찾으시는 해군부대마다에서 조국의 령해를 금성철벽으로 지켜가는 미더운 해병들에게 무한대한 사랑과 정, 최상의 믿음과 영광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선군령장의 손길이 있어 우리의 해군용사들은 한몸이 그대로 어뢰가 되고 폭뢰가 되여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바쳐 사수하는 수령결사옹위의 전위대오로 자라난것 아니던가.

혁명의 만년재보인 구호문헌들을 보위하기 위해 세찬 불길속에 주저없이 뛰여든 해병들, 지난 시기 서해해상전투에서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원쑤들을 전률케 하고 바다의 결사대로서의 위용을 떨친 용사들이 바로 조선인민군 해병들이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적들과의 첨예한 대결전마다에서 무비의 대중적영웅주의와 불굴의 희생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적대세력들의 무모한 새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리며 육탄정신, 자폭정신으로 우리 혁명무력의 불굴의 기상과 영웅적기개를 남김없이 떨쳐온 바다의 최정예강군이 오늘은 또 한분의 탁월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세련된 령도밑에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모습그대로 몸소 어뢰정에 오르시여 해병들과 함께 파도세찬 항해길을 헤치시며 우리 식의 해군전법도 밝혀주시고 해군무력의 현대화를 위하여 끝없는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해군부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군인들의 생활조건을 하나하나 보살펴주시며 그들이 먹는 음식감 한가지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그이의 웅심깊은 애병세계에 눈시울 적신적은 그 얼마였던가.

지금도 희생된 해군용사들의 묘비에서 빛발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존함이 억년바위처럼 드놀지 않는 용감한 해병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최고사령관과 전사들사이의 관계는 영원한 전우의 관계, 숭고한 동지적관계임을 력사의 메부리에 아로새겨준 절세위인의 존함,

세계의 그 어느 나라 군력사에서도 전사한 군인들의 묘주가 되여준 최고사령관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볼수 없다.

멀고 험한 길을 한달음에 달려가시여 희생된 해병들의 돌사진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금시라도 일어나 반길것만 같다고, 사랑하는 아들들과 남편의 희생을 두고 눈물을 흘릴 부모들과 안해들을 생각하면 가슴에서 억장이 무너지는것만 같다고,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그들의 심정이야 오죽하겠는가고 비분을 금치 못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인간애,

용암보다도 뜨거운 그 인간애가 있기에 우리 해병들은 신념으로 가는 조국수호의 항로에는 직선돌격침로만 있을뿐 변침이란 있을수 없다는 불굴의 공격정신을 지닌 사상과 신념의 강자, 만능해병으로 억세게 자라나고있는것이 아닌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공지구위성을 쏘아올린것에 못지 않은 또 하나의 경이적인 성과인 공격형잠수함에서의 탄도탄수중발사의 성공으로 오늘 우리의 해군무력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백두산위인들의 품속에서 장성강화되여온 나날을 뜨겁게 돌이켜보는 이 시각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낮과 밤을 지새우는 우리의 일당백해병들의 마음속에 지금도 우뢰소리마냥 메아리치는 천출명장의 선언이 있다.

미해군력사에 수치스러운 한페지를 우리 세대가 또 한번 써주자고, 미제가 아직까지 맛보지 못한 무서운 공포와 전률, 쓰디쓴 참패를 우리와의 전쟁을 통하여 저들의 땅덩어리에서 맛보게 하자고 하시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강인담대한 기상과 배짱이 마디마디 맥박치는 단호한 선언이다.

그렇다. 우리의 신성한 령해, 령토와 령공에 감히 기여드는 원쑤가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 그 어디에 있든 백두산총대의 불벼락을 피하지 못한다.

또 한분의 불세출의 선군태양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우리의 조선인민군 해군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주체적인 해군무력건설사상과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수령결사옹위, 조국수호의 돌격침로를 따라 백승의 한길만을 가고갈것이다.

장 정 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바쳐가는 청춘의 값높은 삶

조국의 자랑—청년영웅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은 혁명성과 헌신성,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모두가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 로력혁신자가 되여야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청년영웅이 되여야 합니다.》

청년절을 맞이한 이 아침 총진군대오의 앞장에서 세차게 나붓기는 붉은 기폭마냥 힘차게 나아가는 열혈의 모습들이 보인다. 조국결사수호의 총가목을 으스러지게 틀어잡은 천리방선초소의 병사들과 방방곡곡의 일터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을 떨쳐가는 근로청년들, 그 장한 모습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나라는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이라고 하신 말씀의 참뜻을 다시금 깊이 새기게 한다.

청년강국!

그것은 혁명의 년대기마다에 수많은 청년영웅을 배출한 위대한 우리 조국에 대한 또 하나의 뜻깊은 정식화이다. 또한 그것은 앞으로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더 많은 청년영웅들이 우후죽순마냥 자라기를 바라시는 백두령장의 숭고한 기대이고 당부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혁명은 청년영웅들의 높뛰는 심장의 박동과 더불어 인민의 새세상을 창조하는 장엄한 력사의 닻을 올렸으며 우리 조국은 청년영웅들의 값높은 삶과 더불어 위대한 승리의 전통을 아로새겨왔다.

위대한 수령님을 조선의 밤하늘에 높이 솟은 새별로, 식민지노예국의 어둠을 불사르고 새 생활을 꽃피워줄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신 김혁, 차광수동지를 비롯한 우리 혁명의 첫 세대 열혈의 투사들!

자기 령도자에 대한 한없는 매혹과 흠모의 마음을 담아 노래 《조선의 별》을 지어불러 짓눌린 가슴가슴에 서광을 안겨주고 수많은 청년들을 한별옹위투사로 묶어세운 그들이야말로 침략자 일제에 의하여 강요된 압제의 사슬을 박차고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에 떨쳐나선 우리 혁명의 첫 세대 청년영웅들이 아니던가.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는 맹세를 걸음마다 굳게 다지며 민족의 영웅 김대장 따라 원쑤격멸의 총성을 높이 울린 항일빨찌산들도 우리 조국과 인민이 대대손손 길이길이 기억해야 할 영웅중의 영웅들이다.

하기에 우리 당과 조국은 그들모두의 가슴에 달아주어야 할 금별메달을 모두 합쳐가장 큰 금별메달을 영생의 언덕 혁명렬사릉의 맨 앞자리에 정히 새기였다.

벌은 어둠속에서 더욱 반짝인다. 조국의 존엄과 운명이 판가름되던 준엄한 1950년대에 수많은 청년영웅들이 배출되였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을 바치는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또 어디 있으랴라고 하면서 적의 화점을 향해 달려간 18살의 리수복영웅을 비롯하여 한몸이 그대로 증기가 되고 육탄이 되여 원쑤를 족쳤으며 적땅크를 향해 뛰여든 유명무명의 수많은 청년영웅들,

전후시기 해주—하성철길공사를 그처럼 짧은 기간에 해제낀것도 청년건설자들이고 천리마작업반운동에서 인간개조사업의 앞장에 선것도 청년들이다.

고난의 행군시기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한 속에서도 등짐으로 흙과 돌을 져날라 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운 우리 청년들의 위훈은 청년영웅도로라는 빛나는 이름에도 력력히 어려있다.

조국보위도,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과 같은 중요대상건설도 다 맡아하고있는 우리의 청년들이다.

우리의 많은 인민군구분대들과 학교들이 리수복, 강호영, 김광철을 비롯한 청년영웅전사들의 이름으로 불리우고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일떠선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청년탄광, 청년발전소, 청년영웅도로와 같이 청년이라는 칭호로 불리우는것은 우리 청년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세운 력사적공적과 위훈을 상징하는것이다.

청년, 그것은 마치 어려울때 조국을 결사수호하는 병사라는 말인듯, 사회주의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떨치는 위훈자라는 뜻인듯.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들어와서도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청년영웅들이 태여났다.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준 네거리초병 리경심영웅과 녀자축구선수 라은심영웅…

일찌기 세상사람들이 영웅조선이라 칭송한 영광의 땅에서 영웅의 모범을 페부에 새기고 영웅될 꿈을 키우며 자란 우리 청년들, 자기의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받들어 알게 모르게 영웅적위훈의 자욱을 새겨가는 이 나라 청춘들이다.

—이 땅에는 수령을 위하여, 고마운 제도를 위하여 목숨도 아낌없이 바칠 수백만 청년들이 있다.

이것이 위대한 령장을 높이 모신 청년강국에 울리는 신념의 메아리이다.

이 나라의 수백만 청년들 모두가 공화국의 존엄과 안녕을 지키는 싸움에서 너도나도 리수복, 강호영, 안영애가 되리라.

조국의 자랑 청년영웅이 되여 값높은 삶을 빛내이리라.

본사기자 허 명 숙

로동자 《궁전》에 꽃핀 경사

원산구두공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이 있는 곳에는 풍만한 정서가 있고 정서가 넘치는 곳에는 들끓는 생활과 투쟁이 있다.》

우리는 얼마전 록음 우거지고 화단들에 장미꽃들이 활짝 피여난 원산구두공장을 찾았다. 꽃주단우에 솟아난것만 같은 공장건물은 마치 그림속의 로동자 《궁전》같았다.

공장의 희한한 풍경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지배인동무는 천지개벽한 공장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지난 6월 어느날 공장의 한 일군은 제화직장의 리철호동무로부터 결혼식을 공장에서 하고 싶다는 뜻밖의 제의를 받게 되였다. 일군이 놀라움속에 부모들과 의논하였는가고 물어보자 그는 우리 원수님께서 꾸려주신 로동자 《궁전》에서 하는 결혼식을 량켠부모들이 다 찬성하였다고 대답하는것이였다.

리철호동무의 제의는 그날로 공장일군들의 지지를 받게 되였으며 그 소식은 삽시에 종업원들속에 퍼지게 되였다.

며칠후 공장이 생겨 처음 있는 결혼식날이 왔다. 이날 원산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삼가 인사를 올린 신랑신부가 공장구내에 들어서자 그들을 기다리던 공장종업원들이 축하의 인사와 함께 꽃보라를 안겨주었다.

동무들의 축하를 받은 신랑신부는 이윽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현지지도로정을 따라 공장을 돌아보았다. 앞가슴에 꽃송이를 단 신랑은 자부심에 넘쳐 신부에게 공장자랑을 하였고 구내에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다소곳이 숙인 고개를 들줄 모르던 신부는 희한하게 꾸려진 직장안과 맵시있고 색갈고운 신발제품들앞에서 연신 탄성을 올리였다.

이들에 대한 축하의 분위기는 종합적인 문화후생시설들을 갖춘 건물의 2층식당에서 더욱 고조되였다.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성의가 그대로 비낀 음식들이 차려져있고 함께 일하는 직장동무들이 열렬한 박수를 보내줄 때 신랑신부의 눈굽은 달아올랐다.

공장책임일군은 신랑신부를 식당 한가운데로 이끌었다. 신부를 한 의자에 앉히고난 일군은 격정에 젖은 목소리로 이 자리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허물없이 앉으시였던 자리라고, 앞으로 신랑신부가 우리 원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속속들이 슴배여있는 공장에서 결혼축하를 받은 날을 영원히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뒤이어 장내에는 요란한 박수소리가 울리였다.

이날 공장종업원들은 저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기쁨의 노래, 행복의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다.

공장에 신랑신부가 있은 시간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의 충격과 여운은 자못 컸다.

결혼식이 있은 다음부터 공장에 대한 종업원들의 애착은 강렬해지였으며 생산열의는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공장지배인동무는 그 나날속에 혁신자가 된 긍지안고 공장에서 결혼식을 하려는 젊은이들은 계속 늘어만 나고있다고 웃음속에 말하는것이였다.

우리는 로동자 《궁전》에서 꽃펴나고있는 혁신의 소식들을 취재하기 위해 공장안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본사기자 차 수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옹진군 장송협동농장 청년작업반장 김진일동무

《…우리가 무르익혀가는 한알한알의 낟알은 원쑤들의 심장을 꿰뚫는 총탄이고 포탄이며 우리가 채워야 할 나라의 쌀독은 말그대로 조국수호의 병기창과 같다는 자각이였습니다.》

이것은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옹진군 장송협동농장 청년작업반장 김진일동무가 한 토론의 한 대목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청년들은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워 사회주의건설에서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가 되고 영웅이 되여야 합니다.》

여러해전, 옹진땅에 례년에 보기 드문 태풍이 들이닥쳤다. 팔뚝같은 이삭을 품은 강냉이대들이 몸부림치듯 사품쳤다.

김진일동무의 눈앞에 세찬 비바람을 무릅쓰고 강냉이대들을 부둥켜안은 청년작업반원들의 모습이 언뜻언뜻 어려왔다.

지쳐 쓰러질지언정 떠나지 않은 포전, 피땀으로 길구어낸 포전이였고 손끝들이 모지라지도록 가꿔낸 이삭들이였다.

불현듯 그의 뇌리에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어느날 거름생산이 한창인 전투장으로 리당비서가 찾아왔다. 그는 무엇인가 정히 받쳐들고나온것을 김진일동무앞에 펼쳐주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농장 청년작업반원들이 올린 충정의 결의편지를 보아주시고 몸소 보내주신 사랑의 회답편지다.》

가슴이 뭉클 젖어들었다.

원쑤들을 눈앞에 두고있는 연선지대에서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사회주의농촌진지를 모든 면에 걸쳐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야 한다고 이르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간곡하신 음성이 금시 귀전을 짝 메우며 들려오는듯싶었다.

《총대로 나라를 지키는 병사들처럼 새 세대 청년들이 연선지대농장을 꿋꿋이 지켜나가기를 바라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함께 손잡고 이 농장을 지켜가자꾸나. 청년작업반을 쇠소리나게, 인민군대식으로 꾸려보잔 말이다.》

…

인민군대식으로!

순간 어느해인가 서해해상격전의 치렬한 싸움마당에서 후송되여오던 한 병사의 피젖은 모습이 눈앞에 밝혀왔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지들, 내 몫까지 합쳐 원쑤놈들을 무자비하게 족쳐주십시오.》

그 애젊은 병사의 절규가 심장의 피를 끓였다. 그렇다. 병사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우리들의 싸움도 계속될것이다.

불원간 김진일동무의 힘찬 웨침소리가 광풍을 치뚫으며 포전에 메아리쳤다.

《동무들! 여기도 싸우는 전투장입니다. 적들을 향해 복수의 탄환을 날리던 서해의 용사들처럼 목숨바쳐 포전을 지켜냅시다.》

…

이렇듯 자기들이 가꾸는 한평한평의 땅을 피로써 조국을 사수하는 병사와도 같이 지켜싸웠기에 10여년간 국가알곡생산계획을 초과수행하고 많은 원호물자를 마련하여 어머니조국에 바칠수 있은 청년작업반원들이였다.

우리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이런 새 세대 농업전사들이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굳건히 지켜가는 한 우리의 대지는 청년강국의 위용과 기백을 더 높이 떨쳐갈것이다.

본사기자

청춘의 꿈이 꽃펴나는 곳

평양건축종합대학을 찾아서

얼마전 우리는 주체적건축인재양성의 거점이며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전초기지인 평양건축종합대학을 찾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볼데 대한 장군님의 뜻대로 높은 목표와 리상을 가지고 투쟁하며 모든 면에서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야 합니다.》

교정에 들어서던 우리는 문득 속보관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곳 대학생들이 올린 건축형성안들을 몸소 보아주시였다는 소식이 나붙었던것이다. 주인공들을 만나고싶은 마음을 엿본듯 대학의 한 일군은 우리를 건축대학 건축학과 수재반 5학년교실로 이끌어갔다.

교실에 들어서던 우리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이 동무들이 주인공들입니까?》

《너무 젊어서 그럽니까? 이 동무들의 평균나이가 21살입니다. 그러나 꿈과 포부를 어찌 나이로 계산할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설계가가 될 생각을 하였는가고 묻는 우리에게 김금석동무는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청춘시절에 조국을 위해 바친 흔적이 없다면 그 무슨 청춘이겠습니까. 이 땅에 솟아나는 거창한 창조물들에 저의 꿈도 담고싶었습니다.》

어찌 김금석동무뿐이랴.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는것이 리지현, 박금성, 리신념, 오지예동무를 비롯한 대학의 모든 청년학생들의 꿈과 포부인것이다.

몸소 평양건축종합대학의 명예총장이 되시여 건축인재양성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그 품속에 안겨 누구나 마음껏 꿈을 꾸고있는 우리 청년들이였다.

꿈많은 청춘시절에 높은 목표와 원대한 포부를 지닌 그들의 손에서 사회주의문명국의 설계도가 그려진다고 생각하니 더 젊어질 조국의 휘황한 래일이 눈앞에 안겨왔다.

우리는 앞날의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무성한 숲을 이룰 래일을 그려보며 대학을 떠났다.

신 철

나무모생산에 앞서 중시한 문제

덕천시산림경영소에 가면 나무모밭에서 드문드문 자라고있는 피마주들을 볼수 있다. 이것은 해충구제를 위해 심은것들이라고 한다. 사연이 있다.

나무모들이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것은 산림조성사업에서 지켜야 할 당정책적요구이다. 이것을 명심한 모제양묘작업반원들은 올해 토양소독도 과학기술적요구대로 하고 나무모밭둘레에 설치할 나비등들도 착실하게 준비해놓았다. 하지만 그들은 더 좋은 구제방법을 찾기 위해 지혜를 합쳐갔다. 그러던 어느날 작업반장이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지난해 여름철에 그는 퇴적장주변에서 자라고있는 피마주밑에 풍뎅이를 비롯한 해충들이 죽어있는것을 보게 되였다. 순간 피마주를 살충제로 리용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뇌리를 쳤다. 마음같아서는 당장 시험을 해보고싶었지만 여름철이라는 조건을 내대고 또 이런 사업은 과학자들이나 하는것으로 여기면서 그 원인을 밝혀내려고 애쓰지 못하였다.

이야기를 듣고난 작업반원들도 함께 자책을 느끼면서 지혜를 합쳐 방도를 찾아냈다. 그리하여 올해 봄철에 작업반의 나무모밭에는 5m간격으로 피마주씨가 뿌려지게 되였다. 결과는 좋았다. 나무종자보다 먼저 싹터 자란 피마주포기밑에서 최고 수십마리씩의 죽은 해충들이 발견되였다. 더우기 지하해충들의 발생지역으로 주목되던 포전들에서 창성이짤나무모들이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고 잘 자랐다는 사실은 피마주의 구제효과를 더욱 뚜렷이 확증해주었다.

당의 호소에 심장으로 화답해나선 이들은 병충해를 미리막아 나무모들을 튼튼히 키울수 있는 또 하나의 담보를 마련하였다. 특히 이 과정을 통하여 나무모생산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발명이나 발견은 결코 산림과학자들만 할 사업이 아니라는 교훈도 찾았다.

본사기자 김 성 일

청년동맹원들 있는 허천군청년동맹위원회 일군들과 전쟁로병의 가정을 찾아 뜨거운 정을 나누고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선군정치는 자주권수호의 강위력한 보검

반공화국압살을 꾀하며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도발하려는 미국의 호전적망동은 날로 악랄해지고있다.

그러나 우리의 배심은 든든하다. 그것은 백전백승의 선군정치가 제국주의침략세력의 전쟁책동을 짓부시며 민족의 밝은 앞날을 확고히 담보해주고있기때문이다.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의 위대한 선군정치는 남녘겨레들에게 있어서 한없는 민족적긍지로, 커다란 자랑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의 자주학회의 한 회원은 자기의 글에 이렇게 썼다.

《미군이 숱한 전쟁장비들을 동원하여 때없이 벌려놓는 군사연습으로 해서 이 땅에서 전쟁의 불찌가 언제 튕길지 모를 불안정한 정세가 도래한적이 그얼마인가. 하지만 이런 속에서도 사람들은 공포를 모르고 살아가고있다. 그것은 이북에 그 어떤 경우에도 평화를 수호할수 있는 막강한 전쟁억제력이 있기때문이다.

이북의 선군정치는 미국의 독단과 전횡, 강권과 핵전쟁도발기도를 좌절시키는 정의와 평화수호의 보검이다. 그 위대한 보검이 북만이 아니라 남까지도 포함한 전민족, 전민중을 보호해주고 미군으로부터 당하는 수치와 모멸로 인한 이남민중의 가슴속 한까지 후련하게 풀어주고있으니 이처럼 고마운 정치가 이 세상 또 어디에 있겠는가.》

오래동안 선군정치에 대한 연구를 거듭해왔다는 남조선의 한 정치평론가는 동료들에게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터놓으면서 《오늘 조선반도의 평화는 이북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지켜지고있다. 세계정치의 구도와 력학관계도 선군정치를 하는 이북을 축으로 형성되고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의 한 퇴직교수도 《이 땅의 평화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군사적대치의 첨예성과 무력배치의 집중도에 있어서 그 어디와도 대비할데 없는 이 땅은 전란의 위험이 닥쳐온적이 한두번이 아닌 초긴장지역이다. 어느때든지 폭발할 〈시한탄〉을 안고있는 이 땅이다. 현대전에서는 전후방이 따로 없고 전쟁의 참화도 남북을 가리지 않는다. 이 재난을 막고 평화와 안녕을 지켜주는것이 이북의 선군정치이다. 선군정치는 민족의 군대, 민중의 총대가 없어 겪어야 했던 수난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으며 자주와 존엄의 시대, 민중의 복된 세상을 열어나가는 인류리상의 정치방식이다.

이북은 선군정치의 조국이며 선군의 위력으로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 강국이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의 심장마다에서 터져나오고있는 이목소리들에는 선군정치가 민족의 존엄을 떨치고 겨레의 운명을 지켜주는 가장 위대한 애국애족의 정치임을 신념으로 새겨안은 남녘의 민심이 그대로 비껴있다.

평화로운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려는것은 오래전부터 인류가 품어온 소원이다. 하지만 평화는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기대한다고 하여 찾아오는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침략세력의 도전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수 있는 자체의 강위력한 군사적억제력에 의해서만 마련될수 있다.

선군정치야말로 제국주의침략세력의 무분별한 전쟁광기를 짓부시며 나라의 평화와 겨레의 안녕을 철저히 지켜주는 가장 애국애족적인 정치이며 선군의 길이야말로 민족이 살길이고 평화와 통일의 길이다.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달리는 야전차를 집무실로 삼으시고 눈바람, 비바람을 다 맞으시며 사회주의의 운명,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민족번영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신것은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공적이다. 사상과 령도, 풍모에 있어서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을 떠나서 선군조선의 높은 존엄과 불패의 위력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우리 겨레의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하기에 남조선의 한 정치학교수는 《정말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가 아니였다면 조선반도는 그 어느 지역보다 먼저 전란에 잠겼을것이다. 이남민중들이 이 땅의 평화를 지켜주고있는것이 하느님이 아니라 이북의 선군정치라고 주저없이 말하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라고 말하였으며 남조선의 자유기고가 최승진도 자기의 글에서 《오늘의 세계에 있어서 자주권에 관한 문제를 놓고 0.001mm도 양보할수 없다는 굳건한 의지를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고있는 나라는 오직 이북밖에 없다. 이북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은 자주강국으로 위용을 떨칠수 있는것은 무비의 담력과 배심, 철의 의지와 신념을 지니신 김정일령도자님의 선군정치가 안아온 결실이다. 자주강국 이북은 민족의 긍지이고 자랑이다.》라고 격정의 목소리를 터치였다.

독창적이고 위력한 선군정치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침략책동에 준엄한 철추를 내리시며 조국과 민족,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거룩하신 영상은 우리 겨레의 마음속에 태양의 모습으로 더욱 빛나고있다.

력사는 계승해야 빛나고 승리는 이어져야 공고해진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또 한분의 탁월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혁명의 최고령도자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심으로써 백전백승의 력사를 빛나게 이어나가고있다.

최후승리를 향하여 자신만만하게 돌진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세에 질겁한 적대세력들이 반공화국모략과 북침전쟁도발소동을 일삼고있지만 그것은 맨발로 바위를 걷어차는것과 같은 부질없는짓이다.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의 앞길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한생이 어려있는 선군의 보검을 억세게 틀어쥐시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켜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선군령도에 의해 내외원쑤들의 비렬한 반공화국고립압살기도와 반통일대결책동은 걸음마다 분쇄되고있으며 조국통일의 휘황한 앞길이 활짝 열리고있다.

력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같이 그처럼 짧은 기간에 그토록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여 세계사회계와 정치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온 겨레의 다함없는 흠모와 칭송을 받으신 령도자를 알지 못하고있다.

《선군정치의 힘은 예속을 이기는 자주의 힘이고 전쟁을 이기는 평화의 힘이며 분렬을 이기는 통일의 힘이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의 현명한 선군령도에 의하여 미국이 이북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항복서를 바칠 때가 반드시 올것이다.》

…

그렇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 선군령도에 의해 이 땅에서 침략과 전쟁의 근원은 송두리채 청산되고 민족자주위업,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반드시 이룩된다는것이 오늘 남녘겨레의 가슴속에 간직된 철석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본사기자 심 철 영

불멸의 선군령도업적 만대에 빛나리

백 승 의 기 치

남조선의 한 시민단체성원은 출판물에 발표한 자기의 글에서 《제국주의강적들도 감히 범접을 못하는 나라, 외부의 그 어떤 압력과 제재가 통할수 없는 나라, 자주와 존엄에 사는 강대한 나라가 바로 이북이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이북의 자주적위용이 온 누리에 떨쳐질수 있은것은 군을 기둥으로 막강한 국력을 키워오신 김정일령도자님의 선군정치의 자랑찬 결실이다.

그이께서는 선군혁명령도라는 독특한 정치로 이북군을 일당백의 무적강군으로 육성하시였다. 사실 이북이 선군정치로 나라를 철벽의 요새로 다지지 않았다면 삼천리강토는 벌써 핵전쟁의 불길속에 휘말려들었을것이고 우리 민족은 참혹한 피해를 입었을것이다.

이 땅에서 평화를 지켜내고 통일을 안아오고있는것은 다름아닌 이북의 선군정치이다. 북의 선군의 힘이 강위력하기에 조선반도의 평화가 유지되고있다. 결국 선군은 자주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려는 우리 민족모두의 생명선으로 되고있다.

이북의 선군정치야말로 핵전쟁을 막는 평화의 보검이고 민족의 안녕을 굳건히 지켜주는 무적의 무기이며 조국통일투쟁의 승리를 담보해주는 백승의 기치이다.》

민족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남조선의 한 인터네트홈페지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칭송하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리였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령도자의 위대성에 달려있다. 오늘 우리 민족은 선군정치의 덕으로 가장 힘있는 민족으로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령수님께서는 만능의 보검인 선군령치의 막강한 위력과 선군령도로 생사기로에 놓였던 사회주의의 운명,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영예롭게 지켜내시였고 주체의 강성국가건설의 강력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그리고 력사상 처음으로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6.15공동선언을 발표하시여 새 세기 조국통일의 리정표를 마련하시였으며 민족자주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주시였다. 또 북의 대외적권위와 위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였다.

김정일령수님께서 펼치신 위대한 선군정치가 있어 우리 민족, 우리 민중은 민족자주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고야말것이다.》

정 의 의 수 호 자

《민족의 운명과 선군정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가한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자주정치, 선군정치의 위력으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튼튼히 수호하시였고 조국통일실현의 확고한 토대를 닦아주시였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격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외세에 의해 조선반도에 전쟁위험이 몰려오는 위기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철의 신념과 명철한 지략의 결정체인 선군정치에 의해 평화와 안전을 누릴수 있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선군정치가 안아온 6.15공동선언에 의하여 남과 북에는 조국통일의 열풍이 몰아치게 되였다. 선군정치는 실질적으로 대미항전에서 우리 민족이 련전련승하는 기적을 창조함으로써 그 위력을 세계에 떨치였다.

미국을 타승하는 우리 민족의 기적은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애국애족의 드높은 신념, 강철의 의지에서 창조되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은 곧 우리 민족이시였다.

우리 민족은 세계정치무대에 당당하고 막강한 민족으로 등장하게 되였으며 하나로 통일되는 부강한 래일을 기약하게 되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 행복의 창조자, 정의의 수호자이시다.》

본사기자

평화실현을 요구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키는 반공화국도발행위를 단죄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반전평화시국행동》을 전개한다는데 대하여 선포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이 단체의 공동대표는 미국이 조선반도의 분렬을 리용하여 저들의 구식무기를 팔아먹으면서도 남조선의 《우방》으로 자처해왔다고 폭로하였다. 그는 미국이 북남사이의 대결을 조장하면서 고고도요격미싸일 《싸드》 등을 남조선에 배치하려 하고있지만 그로 하여 남조선이 얻을 리익은 아무것도 없다고 까밝혔다.

민가협량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오헌은 집권세력이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무시하고 북남사이의 화해협력과 자주통일의 기반을 송두리채 무너뜨린것으로도 모자라 로골적인 반민족적행위를 감행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야 외세의 전쟁책동을 막아내는 힘이 생긴다고 강조하면서 당국이 미국과 함께 벌리는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길에 적극 나설것을 결의다지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동족을 해치기 위한 세계최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여 시민들이 떨쳐나섰다고 하면서 군사주권을 되찾는것과 반미투쟁을 벌리는것이야말로 옳바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남조선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도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발적인 반공화국심리전방송의 중지를 요구하였다.

단체들은 당국이 반공화국심리전방송을 하면 국지전은 물론 전면전도 피할수 없다고 하면서 당국은 민중의 생명을 인질로 하여 벌리는 어리석고 무모한 군사적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단체들은 당국이 반공화국심리전방송놀음을 벌리는것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단죄하면서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완화를 위해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민중은 남북대결을 바라지 않는다. 오로지 평화를 바랄뿐이다.》라고 하면서 당국이 군사적대결을 중단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것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그들은 당국이 긴장을 격화시키는 호전적언동을 중지할데 대해 요구하였다.

종교단체인사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전을 부를수 있는 대북심리전방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였다.

본사기자 리 성 호

평화통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일본대학 교직원, 학생들 안전보장관련법안을 반대

23일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일본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속에서 당국의 안전보장관련법안추진을 반대하는 기운이 높아가고있다.

나고야대학에서는 지난 5일 법안을 반대하는 단체가 결성되였는데 여기에는 이름있는 교수들을 비롯하여 약 150명이 망라되였다 한다.

법안반대운동의 지지자들도 420명에 이르렀다.

교또대학에서는 지난달 교직원들주도로 결성된 법안반대모임에 약 2 200명이 지지를 표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안전보장관련법안을 반대하는 대학들의 수가 22일 현재 약 90개에 달하였다.

이 대학들에서는 지금 교수, 학생들이 홈페지를 개설하며 법안반대운동을 확대시키고있다.

안보관련법안에 반대하는 학자의 모임에 소속된 도시샤대학의 한 교수는 법안이 헌법을 파괴하기 위한것이라고 규탄하고 《일본의 민주주의가 의문시되고있다고 느꼈기때문에 학생들과 학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범죄 증가

23일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뉴시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10대 청소년들속에서 범죄가 성행하고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로 검거된 청소년들이 1만 3 000여명에 달한다.

【조선중앙통신】

암담한 미래, 황금만능이 낳은 필연적산물

청춘은 젊음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꿈이 많아 청춘이며 크나큰 포부와 리상으로 가슴은 마냥 벅차올라 청춘이다. 이것이 없으면 벌써 청춘이 아니다.

자본주의나라 청년들의 인생행로가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청춘시절은 악몽이며 절망의 련속이다. 그들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있으며 살아가는 그자체에 대해 비관하고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나라에서는 청춘이 상실되여가고있으며 미래가 시들어가고있다.

빼앗긴 배움의 권리

자본주의사회에서 배움의 권리는 돈있는자들만이 향유할수 있는 특권으로 되고있다.

돈이 없으면 학교문전에도 갈수 없다. 설사 학교를 다닌다고 해도 천정부지로 뛰여오르는 학비때문에 중퇴하거나 고학을 하고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고등학교학생 120여만명이 학비때문에 중퇴하고있으며 대학생의 60%가 학비걱정에 시달리고있다고 한다.

미국의 뉴욕시에서만도 해마다 고등학교학생 2만여명이 학비를 제대로 내지 못해 학교에서 쫓겨나고있다.

미국잡지 《타임》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공립, 사립대학들의 평균 년간학비가 2만 4 000US$이상에 달한다.

프랑스에서는 최근년간에 대학학비가 50%나 인상되여 많은 청년들이 대학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있다.

서방의 한 나라에서는 돈이 없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떠돌이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이 무려 200여만명을 헤아리고있다.

초보적인 배움의 권리마저 마음껏 누릴수 없는 이런 사회에는 전도가 있을수 없다.

늘어나는 청년실업자대렬

자본주의나라에서 돈은 배움의 권리만을 좌우지하는것이 아니다. 직업을 구하는데서도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이 바로 돈이다. 학업을 포기한 청년들은 물론이고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도 길거리를 방황하고있다. 졸업이 곧 실업이라고 하는것은 우연한 소리가 아니다.

미국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떠돌아다니는 24살미만 청년들의 수가 약 600만명에 달하고있다. 일본에서는 2013년말까지 직업이 없고 교육도 받지 못한 청년들의 수가 60만명에 이르렀다. 유럽동맹 통계국은 지난해 11월에 성원국들에서 25살미만 청년실업자수가 510만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에스빠냐에서는 29살미만의 청년 5명중 1명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있다고 한다. 영국에서 24살미만 청년실업자수가 약 86만 8 000명을 헤아리고있으며 오스트랄리아에서는 약 58만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돌아다니고있다. 카나다에서는 지난해 3월에 청년실업률이 13.6%, 그리스에서는 지난 4월에 청년실업률이 50.1%에 달하였다고 한다.

거리를 메우는 청년실업자대렬, 이들에게 있어서 삶은 곧 죽음이다.

마 지 막 선 택

사회의 버림을 받고 절망과 고통속에서 모대기며 그들이 택한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타락과 범죄의 길, 죽음의 길이다.

미국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750만명의 청소년들이 알콜을 탐용하고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대학생들이 교정에서 공공연히 마약거래를 하고있는 형편이다.

오스트랄리아에는 40만명에 달하는 마약탐용자들이 있는데 그들중 대다수가 청년들이라고 한다.

에스빠냐에서도 수십만명의 청소년들이 각종 마약을 사용하고있다.

미국에서는 10대, 20대, 30대의 청소년들이 총기를 마구 휘두르며 각종 범죄를 감행하고있다.

얼마전 일본 혹가이도의 도까찌지역에 있는 한 살림집에서 19살 난 청년이 30대의 녀성을 처참하게 살해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계의 경악을 자아냈다.

돈 한푼없이 길거리에서 굶어죽느니 차라리 감옥에 들어가 감옥밥이라도 먹는편이 낫다고 생각하며 우정 범죄를 저지르는 청년들도 있다.

이 나라에서는 해마다 자살자들이 늘어나고있어 사회의 골치거리로 되고있다.

일본내각부가 2013년까지의 지난 42년간 자료를 분석한데 의하면 개학날에 18살미만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것이 판명되였다.

자살원인은 앞날에 대한 절망 등에 있다고 한다.

자살의 길, 이것은 자본주의나라 청년들이 숨막히는 사회, 황금만능의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인것이다.

청년들을 버린 대가로 자본주의사회에 차례질것은 멸망뿐이다.

본사기자 박 송 영

미국은 세계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세계적판도에서 화해와 완화과정이 추진되여 나라들사이의 관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지난날 적대관계에 있던 나라들이 서로 협력하는 길로 나가고있는것이 오늘 하나의 국제적추세로 되고있다.

그러나 유독 조선반도에서만은 오늘도 랭전시대의 유물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그것은 날을 따라 첨예화되고있다. 쌍방의 방대한 무력이 집결되여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있는 군사분계선에서의 우발적인 사건이 전면전쟁의 도화선으로 될수 있는것이 다름아닌 조선반도의 엄혹한 현실이다. 국제사회가 조선반도의 엄중한 사태에 우려를 금치 못하고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줄이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문제가 현실적요구로 제기되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최근 미국인터네트신문 《글로벌 포스트》는 미국과 일본, 유럽, 남조선 등의 약 100명의 정계인물들이 어느 한 국제회의에서 《평화선언》을 채택한 소식을 전하였다.

전 미국부대통령 몬데일, 전 일본수상 하또야마 등이 서명한 《평화선언》의 골자는 조선반도평화보장을 위해 미국과 일본, 남조선이 먼저 긴장완화조치를 취해야 하며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는것이다.

이것은 세계여론이 미국의 침략적대외정책을 변경시켜야 한다는데로 초점을 모으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반도에 오늘과 같이 위험천만한 최악의 사태를 몰아온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조선반도를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만든 화근이며 평화와 안전보장의 기본장애이다.

우리는 지난 시기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낡은 정전체계를 평화체계로 바꿀데 대한 제안을 내놓고 이에 호응해나설것을 미국에 거듭 요구하였다. 제안에는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청산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들이 다 들어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제안을 한사코 외면하고있다.

미국이 우리의 공명정대한 평화제안을 오늘까지 계속 반대하는것은 그것이 저들의 침략적인 대외정책과 모순되기때문이다. 미국이 강행하고있는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은 21세기 세계지배전략의 중핵이며 기둥이다. 미제는 동북아시아지역 특히 지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조선반도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전조선을 완전히 틀어쥐지 않고서는 아시아대륙을 지배할수 없으며 나아가서 유라시아대륙에 대한 군사적포위환을 형성할수 없다는것이 미국의 판단이다.

조선반도와 일본에 주둔하고있는 미군은 미국의 침략적인 대조선, 대아시아전략실현의 돌격대이다. 따라서 남조선과 일본주둔 미군의 모든 군사활동은 전조선에 대한 군사적지배를 실현하고 아시아를 통채로 거머쥐려는 미국의 기도에 맞게 감행되고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중시하는 국방전략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남조선, 일본을 망라하는 3각군사동맹을 수립하려고 발광하고있다. 그 첫 공격목표는 우리 공화국이다.

미국은 최근년간 《잊혀진 전쟁》이요 뭐요 하면서 지난 조선전쟁에서의 패전을 승전으로 바꾸어보려고 어리석게 시도하고있으며 남조선과의 그 무슨 《굳건한 동맹》이요 뭐요 하는 시대착오적인 나발을 불어대고있다. 이것은 조선전쟁에서 저들이 당한 참패를 가리우고 추종세력들을 또다시 전쟁하수인, 침략의 돌격대로 내몰기 위한 책동이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가 완화되는것을 바라지 않는 미국은 어떻게 하나 지역에서 항시적인 전쟁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 모지름을 쓰고있다. 미국은 올해에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는것으로써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할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합동군사연습은 《투명하고 방어적인 목적을 가진 연습》이라느니 뭐니 하며 전면거부해나섰다.

우리 공화국과 주변나라들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남조선군부호전광들과 야합하여 침략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았다.

전쟁위험이 극도에 이른 조선반도의 현정세는 미국이야말로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침략과 전쟁의 근원이라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보다 악랄하고 극악하게 강행해나가고있는것은 핵보유국으로 된 우리 공화국이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에 파렬구를 내고있다고 보는데 있다.

《핵무기없는 세계》를 제창하며 등장한 오바마정권이 대조선정책의 골간으로 정하고 집요하게 강행해온것이 바로 오늘날 안팎의 조소거리로 된 《전략적인내》정책이다. 우리가 《선 핵포기》라는 행동변화를 보일때까지 우리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압박과 제재를 가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는것이 《전략적인내》정책이다.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은 철두철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다. 반세기이상 지속되고있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우리에 대한 핵공갈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지난 조선전쟁시기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우리 인민을 핵무기로 끊임없이 위협공갈하여왔다.

우리 공화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하여,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위적핵억제력을 마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전략적인내》정책은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를 가로막은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핵보유국지위를 굳건히 해주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오바마정권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내세워 주권국가로서 응당 가져야 할 평화적위성발사권리와 같은 자주적권리를 강탈하려고 사태를 극단에로 몰아간 상황에서 우리 공화국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내놓았다.

명백한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우리와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수 없다는것이다.

원래 핵위협의 진범인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세계유일의 핵전범국이고 최대의 핵무기보유국이며 핵위협과 공갈로 세계를 제패해보려고 발광하는 미국이다. 그러나 미국은 《핵무기없는 세계》건설구상을 떠들며 우리에게 《진정성》을 보이라고 떠들고있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더러 무장해제를 하라는것이다. 순리로 본다면 우리를 핵보유의 길로 떠민 미국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누가 듣기에도 역스러운 《진정성》이라는 낡은 레코드판을 계속 돌리고있다.

우리에게서 무장해제를 바라는것은 맑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것처럼 어리석기 그지없는짓이다.

미국이 우리에게 핵참화를 들씌우려고 핵전략타격수단들인 핵전략폭격기, 핵잠수함, 핵항공모함들을 수시로 조선반도에 끌어들여 불의의 핵선제타격연습을 벌리는 조건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쟁억제력을 포기할수 있겠는가.

핵위협공갈에 기초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우리에게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는것은 단순히 이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과 직결되여있는 문제이다. 본토에 수많은 대륙간탄도미싸일들을 가지고있는것도 모자라 대양건너 멀리 떨어진 남의 땅에 방대한 침략군을 전개하고있는 미국은 국제사회의 엄숙한 요구를 받아들여 하루빨리 정책적결단을 내려야 한다.

미국은 저들의 도발에 의한 첨예한 조미군사적대결전들이 매번 미국의 굴복과 사죄로, 우리의 승리로 결속되였다는것을 똑똑히 명심하여야 한다. 적들이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핀다면 도발자들을 격멸소탕하고 조선반도에서 침략과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내자, 이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미국의 끈질긴 정치군사적압박과 극악한 경제봉쇄책동속에서도 우리 나라는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세계에 자주와 정의의 성새,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서의 위력을 높이 떨치고있다.

미국은 선택을 똑바로 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에 평화보장체계가 전혀 세워져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어떤 사소한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도 전면전쟁의 불길이 지펴질수 있다.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의 전쟁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것인가는 미국도 잘 알것이다.

대조선침략책동이야말로 칼을 물고 뜀뛰기를 하는것과 같은 위험한 놀음이다.

조선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가려는 우리 공화국의 립장은 확고부동하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자위적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다.

미국은 국제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라도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여야 할것이다.

리 현 도

일본의 군비증강책동

일본이 군사대국화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군비증강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최근 일본의 《아사히신붕》은 방위성이 2016회계년도 예산에서 5조 2 000억¥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군사비로 할당하기로 하였다고 전하였다.

그것은 지난 회계년도 군사비에 비해 2.2% 더 많은것이라 한다. 군사비에는 이지스전투체계와 관련장비가 설치된 유도미싸일구축함 1척,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3대, 《F-35》전투기 6대, 군용수송기 《MV-22 오스프레이》 등의 구입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여있다고 한다.

테로반대투쟁 강화

수리아정부가 테로와의 투쟁을 강화하고있다.

16일 수리아군대는 수도교외에 있는 테로분자들의 소굴에 대한 공습을 단행하여 많은 테로분자들을 소멸하고 전투기술기재들과 탄약창고들을 파괴하였다 한다. 이 나라의 사나통신이 이에 대해 전하였다.

열 파 피 해

에짚트전역을 휩쓸고있는 열파로 인명피해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18일 이 나라 보건성은 현재 전국적인 사망자수가 109명으로 늘어났으며 수백명이 열사병에 걸려 고통을 겪고있다고 밝혔다. 나라에서는 8월에 들어와 최고기온이 50℃를 넘어섰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ㄱ-511358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